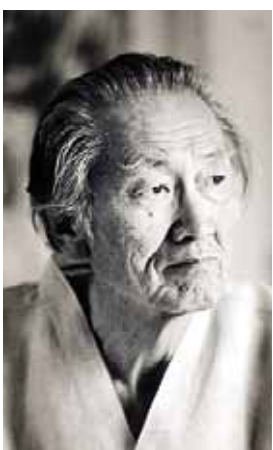


一生墨奴…붓끝에 맺힌 남도의 정신

〈일생묵노·평생 먹과 함께 한다〉



도립 전남옥과미술관 개관 20주년 '아산 조방원' 특별전



아산 조방원

아산 기증품 6801점으로 설립

남농 잇는 남종화 마지막 대가

‘청산백운’ 등 미공개 작품 전시

고(故) 아산 조방원(1926~2014) 화백은 남도에 대한 애정이 누구보다도 깊었다. 소치 허련, 남농 허견을 잇는 아산은 한국 남종화 마지막 대가로 꼽힌다. 남도에 대한 애정이 깊었던 그는 개인 창작 뿐 아니라 지역문화계 발전과 후진 양성에서도 진한 발자취를 남겼다. 남도국악원을 설립했으며 제자 양성을 위해 담양에 ‘묵노헌(墨奴軒)’을 지었다.

지난 1996년 설립된 도립 전남옥과미술관(관장 조완)도 아산의 지역사랑이다. 미술관은 그가 1988년 기증한 작품 6801점(간찰 5772, 서화·서첩류 92, 성리대전목판 각 939)과 개인 소유 부지(1만4090㎡)를 토대로 만들어 졌다.

옥과미술관이 개관 20주년을 맞아 ‘아산 조방원-일생묵노(一生墨奴)’ 특별전을 24일부터 6월24일까지 미술관 2층 아산2실에서 개최한다. ‘일생묵노’는 평생 먹과 함께 한다는 뜻이다.



개관 20주년을 맞은 도립 전남옥과미술관.



아산 선생의 친필 ‘일생묵노’

“남도의 정신과 한의 가락이 운필에 맺히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장강범영’, ‘청산백운’ 등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작품과 소장품 등을 선보인다. 지난 1988년 기증 때는 본인 작품은 없었다.

아산은 죽기 전 20년 동안 보관하고 있던 작품(200여점)과 간찰 등 소장품(5000여점), 붓·벼루 등 수집품 2000여점을 아산미술문화재단(이하 재단)에 기증했었다.

미술관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재단은 전시장 규모상 기증품들을 순차적으로 바꿔가며 전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먹그림으로 유명한 ‘산사우제’, ‘석산귀초’, ‘선사옥일’, ‘장강만리’ 등도 소개된다.

이중 수집품은 평소 문방사우(文房四友)를 좋아했던 아산이 중국 등에서 평생 모은 것들이다.

아산은 스승 남농의 기법을 따르면서도 남도의 정서에 맞게 투박하고 거친 표현을 가미했다. “매 순간이 비워내야 하는 정진의 시간”이라며 노장 사상의 ‘무위(無爲)’ 자연을 이상으로 삼고 끊임없는 반복과 노력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일가를 이뤘다.

크고 아름다운 산을 의미하는 호 ‘아산(雅山)’이 말해 주듯 작품에는 산이 많이 등장한다. 이번에 전시되는 작품 ‘산사우제’, ‘선사옥일’, ‘장강만리’는 부드러운 면에서도 때론 날카로운 산 모양이 인상적이다. 특히 아산 산수에서는 집이나 절, 마을 등이 모두 산이 감싸고 있는 듯한 모양새로 그의 숭산사상을 엿볼 수 있다.

옥과미술관에서 약 15년 동안 관리실장직을 맡은 후 이달 초 선임된 조완(55) 선임 관장은 “이번 전시를 계기로 조방원 선생의 작품을 상설 전시해 아산의 유지와 정신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며 “아산과 마찬가지로 허견의 제자들인 청당 김명제, 도천 신영복 등 잘 알려지지 않은 남종화 대가들의 작품도 선보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 “올해부터는 ‘해설이 있는 숲속 미술학교’ 등 어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참여·실습 위주 미술 프로그램도 진행할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문의 061-363-7278.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이때방춤 보존하자…목포서 승무 연수회

23~24일 목포문화예회관 전수관

전국 무용인·지도자·학생 참석

목포시와 우봉이매방춤보존회가 고(故)이매방 선생이 보유하고 있는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샤진) 보존을 위해 제17회 승무 연수회를 개최한다.

오는 23~24일 목포문화예회관 우봉 이매방춤 전수관에서 열리는 이번 연수회에는 전국의 중견 무용예술인, 무용 지도자, 전공자, 학생 등이 참여한다.

이매방 선생의 승무는 장관을 이루는 복가락, 세찬 장삼놀음, 뺨어난 발디딤 새의 춤으로 우리나라 민속춤의 정수로 불린다. 또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호남형 승무로 1935년께 조부인 이대조 선생에게 배운 후 반세기 동안 갈고 다듬은 춤이다.

강사로는 우봉이매방춤보존회 회장 김명자(중요무형문화재제27호 승무전수교육조교), 김묘선(〃), 최장덕(중요무형문화재제27호 승무이수자)씨가 참



여한다. www.leemaebang.com. 문의. 02-2298-7001, 010-5358-270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퍼포먼스·설치 작품으로…폐라의 재해석

문화전당 지역 커뮤니티 공모…청년문화 허브 ‘페이퍼 큐’

내일 문화전당·유스퀘어 일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지역 커뮤니티 작품 공모를 통해 선정한 세 번째 작품 ‘질문하는 인간-페이퍼 큐(Paper Q)’(이하 페이퍼 큐(Paper Q))가 23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원과 유스퀘어 터미널 등에서 열린다.

청년문화 허브가 진행하는 이번 작품은 ‘페이퍼 큐(Paper Q)’는 권력 계층의 이데올로기를 선전하는 인쇄물인 ‘폐라’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다양한 장르로 표현한 작품이다. 기존 인쇄물 형식의 폐라에 국한하지 않고 퍼포먼스, 미디어, 설치 작품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제작된 점이 특징이다.

이번 작품은 전업 예술인이 아닌, 청년을 중심으로 한 일반 시민들이 참여한 프로젝트로 참가자들은 11개 주제를 선정하고 워크숍 과정을 통해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화장실에서 밥먹는 사람’, ‘고민 상담 편지’, ‘나는 애완 동물’, ‘아프니까 청춘이다’, ‘처녀들의 섹스 토크’ 등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청년문화허브 홈페이지(www.culturehub.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415-354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지역협력 프로젝트 ‘월레회’

내일까지 독서모임·강연·영상 상연

광주비엔날레재단(이하 재단)이 ‘제11회 광주비엔날레’ 전시 주제 선정을 위한 지역 협력 프로젝트를 처음으로 선보인다.

재단은 마리아 린드 예술총감독의 국내 3차 리서치 기간(19~24일)에 맞춰 ‘미테우그로’와 공동기획한 ‘월레회’를 대인시장 미테우그로에서 23일까지 진행한다. ‘미테우그로’는 지역 협력 큐레이터에 선정될 예정이다. 마리아 린드 총감독과 보조기획자 등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독서모임, 영상 상영회, 강연 등으로 구성됐다.

22일 오후 6시 참여작가 도라 가르시아가 2013년도에 제작한 영상작 ‘제임스 조이스 소사이어티’ 상영회가 열린다. 상영 후 도라 가르시아와 최빛나 큐레이터와의 대담이 진행된다.

23일 오후 6시에는 강연·세미나 시리즈 ‘인프라스쿨’ 프로젝트 시범 사업으로 소련 안드레아는 초청 강연이 마련된다. 안드레아는 ‘매개가 달콤하게 한 방 날리다’를 주제로 문화 안에서 ‘매개’라는 개념을 다룬다. 한편, ‘월레회’는 이후 매달 1~2회씩 광주 곳곳의 예술 공간, 카페, 야외공원 등지에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062-608-4224.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http://www.hankooktea.co.kr

한국제다

대한민국 차 부문 전통식품 명인지정



한국제다는 10만명의 자가농장과 60년의 제다各種유기농 제다 대한민국 식품 명인 선정 국제 녹차 품평회에서 최우수상 수상 2009년 식품평에서 1등상(금상) 수상 L.A外 3개국 수출중 ISO 22000 인증 획득

전 세계로 나가는 아시아나 기내에 엄선된 名入의 차만 남품 名節의 高貴한 선물은 名入이 만든 名茶를 권합니다.



제품문의 한국제다 본사 062-222-3973 | 차생원 본점 062-232-3973 | 광주 차생원 062-224-2902 | 광주 신세계점 | 광주 롯데점 062-221-1037 | 부산 차생원 051-7007~8